

묵은 책 리바이벌, 왜 붐이루나

‘부활’과 ‘재탕’의 시각 공존하며 평가 엇갈려

흔히 리바이벌이라 불리는 再출간의 이유는 다양하다. ‘재탕’에서 ‘재발견’까지의 각 층 위마다 이유가 있다. “장시는 해야겠다고 원고는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에서부터 “선지자의 부활”이라는 비유가 동원되기도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은건한’ 설명은 크게 세 갈래이다.

첫째, 5년 내지 10년 주기로 새로이 형성되는 독자군의 기호나 취향에 맞게 可讀性 있는 책들을 체재를 바꿔 출간한다는 것. 둘째, 출판사의 폐업으로 인해 좋은 책이 ‘사고死’를 당했거나 여러 이유로 절판되었을 경우. 그리고 時運을 잘못 만나 독자들의 손길을 받지 못하다가 비로소 때를 찾은 경우 등이다. 작가 스스로가 재발간을 원하는 경우는 그 기회를 통해 애정이 가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보자는 전략을 갖고 있을 때라는 것이다.

“악서만 아니라면 재출간도 의의있다”

최근들어 세인의 관심을 모으는 몇 종의 재발간 소설들이 줄을 잇고 있다. 원로작가 김성한씨의 「고려태조 왕건」(포도원), 「이성계」(지성과 사상), 「임진왜란」(행림출판)과 故 유주현씨의 「조선총독부」(배영사), 오성찬씨의 「추사 김정희」(지영사), 박경리씨의 「김약국의 딸들」(나남) 등이 그것이다.

이들 리바이벌 소설 중 일부는 해를 넘겨 베스트셀러 목록의 상단에 자리하는 ‘역사인물소설 트로이카’ 체제에, 나쁘게 말하면, ‘편승’하고자 하는 기획에서 다시 출간되었으리란 시각이 있다. 수요에 비해 창작물 원고 공급이 딸리는 비정상적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역사인물소설 붐에 손쉽게 가세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시류를 좇는다”는 의견과 반대로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이제야 때를 만났다”고 적극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학총장 등이 머리맡에 두고 탐독했던 문체의 소설!”이며 지난 68년 제8회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했던 「조선총독부」를 낸 배영사의 양관희 상무는 “한 세기 전과 너무 닮은 양상으로 일본 군국주의가 다시 머리를 들고 있는 현상황에서 젊은 독자들에게 일본을 바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재출간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고려태조 왕건」을 재발간한 도서출판 포도원의 박현호 부장은 “역사인물소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급조된 작품보다는 차라리 문학성을 인정받은

깊이있는 작품을 다시 출간하는 게 오히려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다. 지난 67년 지문각에서 발행했던 「이성계」를 「소설 이성계」라는 제목으로 재출간한 지성과 사상사의 홍철부부장 역시 “새로이 형성된 독자군에게 진정 필요한 책인가 하는 심사숙고가 전제된다면 리바이벌출판을 나쁘게 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혹자는 악서만 아니라면 상업적인 성공을 지상목표로 하는 재출간을 백안시하는 태도야말로 이제는 타기되어야 할 업숙주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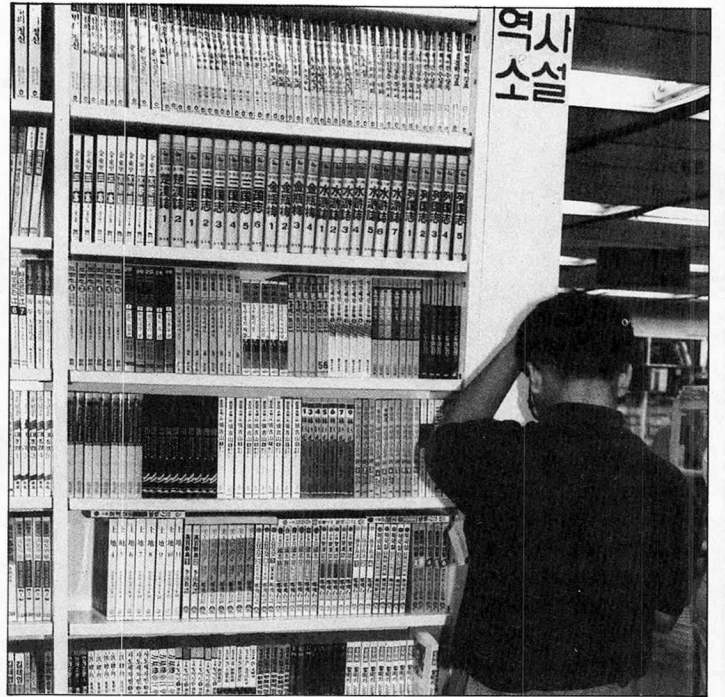
리바이벌되는 책들은 최소한 제목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개정·증보에 가까운 내용의 대폭적 변화까지가 수반된다.

작금의 재출간 역사인물소설들은 대개 원제 앞에 ‘소설’자가 붙는다. 「소설 ○○○」류의 책은 현재 200여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돼 ‘전 위인의 소설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작명법으로 여겨진다는 중론이다. 비교적 오래된 예이기는 하지만, 88년 2월 정신세계사刊 「바바 하리 다스의 철판」은 그해 8월 「성자가 된 청소부」로 개명돼 서울의 종이값을 올렸던 일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책의 얼굴인 표지, 내용이 돋보이게 하는 본문 레이아웃 등 토달디자인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그들은 한두 해만 지나도 독자들의 감각에는 낯은 것으로 치부되므로 그때마다 바뀌는 일이 필요하다고 편집대행전문회사인 ‘글이랑’의 관계자는 전한다. 또한 정신세계사의 강무성씨는 “자기 회사의 책들이 일정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새 판본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내용과 디자인의 이미지가 맥이 닿는 책들이 모이면 총서로 묶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오래된 책일 경우는 국한문혼용 세로쓰기의 본문을 가급적 한자를 배제하고 활자를 키우고 가로쓰기로 바꾼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는 사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할 만한” 내용의 책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산뜻한 체재 및 형식으로 변형한 독자서비스의 일종이라는 해석이다. 출판사의 기획력 부족이나 필자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 절대 아니라고 출판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작가의 바람과 출판사의 기획의도가 조우해 재출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86년 「세한도」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가 최근 지영사에서 「추사 김정희」로 재출간된 오성찬씨의



“체재와 내용의 개선이 없는 리바이벌은 ‘재탕’에 불과하다”

소설집은 “내용을 보충했다”는 점과 시의성이 행복하게 만난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한 소설집 ‘작가의 말’도 좋은 예가 된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 이 첫아이를 집에 데려다가 못난 데는 손도 좀 보아주고 종기난 부위는 잘라내고 해서 많이 다독겨러 다시 세상에 내보낸다.”

그럼으로써 이전 판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얻는 이같은 리바이벌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곤 한다.

시류에 무임승차하려는 시도 적잖아

양서로 자타공인될 만한 책이지만 절판됐거나 때를 잘못 만나 창고에서 묵다가 사회상황과 맞물려 다시 출간되기도 한다. 조지훈 지음 「한국민족운동사」(나남)의 재발간은 작금 이완용 후손들의 땅찾기 작태에 대한 준엄한 경고장의 의미를 지닌다. 80년대 중반 동아일보사에서 나왔다가 울초 다시 나온 「소설 고려태조 왕건」(포도원)은 당시 독자들의 ‘민중주의적’ 정서에 걸맞지 않아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하다가 최근 다소 가볍고 천박하기도 한 역사인물소설에 식상해하는 성숙한 독자들을 중심으로 읽히고 있다. 지난 78년 초판 발행 당시 동양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命理學해설서로 평가됐던 「명리사전」(너른터刊)의 재발간은 최근의 역학이나 풍수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같은 미덕들을 훼손시키는 리바이

벌 출판물도 많은데, 꾸준한 수요가 이루어지는 고전물의 베끼기·중복 문제가 특히 그러하다. 한 작품당 100여종이 넘는 고전 재발간 도서들 중의 거개는 최소한의 문문이나 재번역·재해석을 거치지 않은 짜집기 형태의 것이 주종을 이룬다.

재발간도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또다른 형태는 말그대로 시류에 무임승차한 책들을 꼽을 수 있다. 이를테면, 한창 포스트모더니즘이 수입되고 그에 관련된 논쟁이 벌어질 즈음, 케케묵은 「영미소설론」이 제목만 변경돼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서로 둔갑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출판물이 폭발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을 때 무수한 아류가 줄속출판되는 현상도 광의의 그릇된 리바이벌일 터이다.

재발간도서는 대개 리바이벌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추할 수 있듯, 대중성과 작품성을 갖춘 내용을 지닌다. 따라서 체재나 형식을 이전 판본보다 새롭고 산뜻하게 만들어낸다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을유문화사의 고정이 주간은 “저작권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없이 리바이벌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상업성이 없어도 독자가 찾는 절판된 책의 리바이벌은 뜻있는 이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정리한다.

그러나 애당초 훌륭한 기획과 마케팅 전략으로 출판시장에서 중단없이 호응을 받는 ‘초간본’보다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는 일임은 자명하다.

— 김종식 기자